

막내서 듬직한 수문장으로... 광주FC 골키퍼 제중현

# 거미손으로 '승격의 문' 연다



**올 시즌 25경기 출전 주전 도약...PO 등 최근 4경기 무실점  
"경험은 가장 큰 자산...생일날 내게 1부리그 승격 선물할 것"**

K리그 챌린지 광주 FC의 골키퍼 제중현(23)이 2일 축구 선수 인생에서 가장 큰 무대에 선다. 팀의 클래식 리그 복귀가 걸린 경남 FC와의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이 2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큰 경기를 앞두고 있지만 제중현은 "기다려왔던 매치"라며 차분한 목소리였다.

지난 시즌 25경기에 출전했던 제중현은 올 시즌에는 25경기를 지키며 주전 골키퍼로 도약했다. 플레이오프 포함 최근 4경기 무실점을 지휘하면

서 '겨울잔치'의 주인공이 됐다.

제중현은 "준·플레이오프 경기를 할 때 시즌과 큰 차이는 없었다. 강원전에서는 골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기는 했지만 무승부만 해도 강원이 이기는 상황이라서 상대가 오히려 방심하는 것 같았다. 수비적으로 많이 나와서 역습에만 대비하면 골을 먹지 않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큰 무대에서 유감없이 전기를 발휘하고 있지만 본인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활약이다. 경쟁

한 선배들에 가려져 있던 막내 골키퍼의 시즌 전 목표는 "지난해보다 더 많이 뛰는 것"이었다. 기회를 놓치지 않은 제중현은 팀을 대표하는 든든한 수문장으로 자랐다.

제중현은 "시즌 초에는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컸다. 작년보다는 더 많이 뛰고 싶었는데 조금씩 욕심이 생겼고, 한 경기 한 경기 뛰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르게 됐다. 운도 많이 따랐다"며 "남들보다 잘하는 것은 없는데 성실한 것 하나는 자신 있다. 뒤에서 묵묵히 기다리면서 노력하다 보니 기다려던 것 찾아온 것 같다"고 말했다.

경험은 올 시즌 제중현이 얻은 가장 큰 선물이자 자산이다.

제중현은 "경기장에 들어가면 옛날에는 아무

것도 안 들리고, 내가 해야 할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전체적으로 경기가 보인다. 경험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좋은 경험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팀이 뒷심에서 밀리며 고개를 숙여야 했던 순간도 많았다. 하지만 쓴 실패와 경험이 광주를 더 단단하게 만든 힘이 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제중현은 "초반에는 너무 겁없이 뛰는 생각 안 하고 공격을 했던 것 같다. 70분 이후 체력이 떨어지니까 역전이 되고 실패를 많이 했다. 우리가 그런 아픔을 많이 당해왔기 때문에 더 잘 알게 된 것 같다. 지금은 안전하게 기다렸다가 유리한데 찬스가 오면 놓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0경기를 채우겠다는 개인적인 목표는 이뤄

다. 수상은 실패했지만 베스트 11 후보로도 이름을 올렸다. 제중현은 팀 승격이라는 또 다른 목표를 자신의 손으로 이뤄내고 싶다. 올 시즌 마지막 휘슬이 울릴 승강플레이오프 2차전은 생일날 고향에서 치르는 경기이기도 하다.

제중현은 "창원이 고향이라서 경남이라는 팀을 보면서 축구를 했다. 어렸을 때부터 꿈꿨던 매치다. 6일이 내 생일이기도 하다. 마음가짐이 다를 것 같다. 마지막날 웃고 싶다"며 "주변에서 어떤 각도에서도 슈팅이 날아오니까 송수영을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데 친구라서 많이 상대 해봐서 잘 안다. 골도 많이 먹어보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안 먹도록 하겠다"고 웃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김효주 '대박 샷'

롯데와 계약금 13억원에 5년 계약

내년 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진출하는 김효주(19)가 롯데그룹과 2019년까지 5년간 계약했다.

롯데그룹은 5년간 부대비용을 포함한 국내 선수 최고 수준의 계약금 13억원과 성적에 따른 인센티브(우승 시 상금의 70%, 5위 이내 30%)를 주는 조건으로 김효주와 계약했다고 2일 밝혔다.

LPGA 상금랭킹 1위, 세계랭킹 1위, 그랜드슬램 달성 시 10억원의 추가 인센티브 조건도 포함됐다. 올 한 해 인센티브 11억원을 받은 김효주는 상금 규모가 큰 LPGA 투어 진출 시 성적에 따라 더욱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프로 데뷔와 함께 롯데그룹과 후원 계약을 맺었던 김효주는 같은 해 현대차이나 레이디스 오픈에서 우승해 실력을 입증했다.

올해에는 기아자동차 한국여자오픈을 비롯해 하이트 챔피언십, KB금융 스타챔피언십까지 국내 3개 메이저대회를 석권한 것을 포함해 5승을 올렸다. 또한 LPGA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 우승을 통해 LPGA 무대 출전권을 따냈다. /연합뉴스

## "FA 거품? 동의 못해"

프로야구선수협 "기간 길고 금액 4년간 나눠 받아"

자유계약선수(FA)의 몸값이 전성부지로 치솟으면서 FA 시장에 거품이 끼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놨다.

서재용 선수협 회장은 2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선수협 정기총회를 마친 뒤 FA 과열 문제에 대해 "금액을 볼 때 80억~90억원이라고 하지만 1년에 이 돈을 모두 쏟아붓는 것은 아니다"면서 "대부분 4년 계약으로, 4년 동안 이걸 나눠서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회장은 이어 "우리나라 FA 기한이 다른 나라에 비해 길다. FA 규정을 한국야구위

원회(KBO) 단장 회의에서 조금만 바꾼다면 과열 문제는 제기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구단이 원해서 선수를 데려간 것이다. 구단이 그 선수를 원해서 그 금액을 제시한 것을 선수들이 수용한 것인데, FA와 관련해서 잘못된 보도가 많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선용 선수협 사무총장은 "FA 거품, 과열 등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구단이 비용을 낮추기 위해 우선 협상, 보상 선수, FA 취득 기간 등을 불공정하게 만들면서 선수들의 공급을 막아서 빚어진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선수협 주장의 골자는 현재 9년(대졸 선수 8년)인 FA 연한을 단축해 시장공급을 늘리면 FA 과열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종식 선수협 사무총장은 "선수협의 입장은 FA 취득 기간을 줄여달라는 것이다. 결의사항은 아니고 FA에 관련된 규정에 대해 KBO와 협상하고 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밖에 선수협은 비활동기간 선수 단체 훈련 금지 규정을 재확인했다. KBO 규약상 12월 1일부터 이듬해 1월 15일까지는 비활동기간으로 어떠한 단체훈련이나 전지훈련이 허용되지 않고, 선수들은 1월 15일 이후부터 훈련 참가가 가능하다. /연합뉴스



## 서건창, 동료들도 인정

선수협 선정 '올해의 선수상'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에 오른 서건창(25·넥센 히어로즈)이 동료 선수들이 뽑은 최고 선수에도 선정됐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회)는 2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 호텔에서 '2014 플레이어스 초이스 어워드' 수상자를 발표했다.

서건창은 선수단 투표로 진행된 '올해의 선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팬투표로 진행된 올해의 스타플레이어상 부문에서도 1위를 차지해 2관왕에 올랐다. 그는 올해의 선수상(700만원)과 스타플레이어상(500만원)까지 상금만 1200만원을 거머쥐었다.

서건창은 올해 넥센의 불박이 1번 타자로 활약하며 128경기에서 타율 0.370(543타수 201안타) 67타점 135득점 48도루라는 최고의 성적을 올렸다.

한국프로야구 사상 최초로 한 시즌 200안타를 돌파했고, 역대 한 시즌 최다 득점 기록도 다시 썼다.

서건창은 "선수들이 주신 상이라서 더욱 뜻깊은 상"이라며 "큰 상에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고 말했다.

정규리그 신인왕에 빛나는 박민우(21·NC 다이노스)도 올해의 신인상을 수상했다. /연합뉴스

## KIA 차영화 코치 돕기 일일호프

선수들 바자회·사인회 등 6일 챔피언스필드 4층 '챔스홀릭'

불의의 사고로 병상에 있는 차영화 코치를 돕기 위한 일일호프가 열린다.

KIA 타이거즈 구단과 선수단 상조회(회장 이범호)는 오는 6일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4층 바다요리 전문점 '챔스홀릭'에서 차영화 코치 돕기 일일호프를 연다. 미성년자는 오후 10시까지 출입이 가능하며 주류를 구입할 수 없다.

일일호프 함께 바자회와 사인회 등의 행사도 진행한다. 선수단은 이에 앞서 챔피언스필드 3층 콘

선수들이 유니폼을 입고 직접 서빙을 하며 모금 활동의 일환으로 즉석 포토 타임과 선수단 애장품 경매 행사가 진행된다.

가족과 친구 등 단체(8명 이하)팬들을 대상으로 스카이박스 이용권도 판매된다. 선착순 10석이 판매되며 스카이박스를 이용하는 팬들은 독립된 공간에서 선수들이 서빙하는 음식을 먹으며 기념촬영을 할 수 있다. 사인 볼도 제공된다. 선수단은 이에 앞서 챔피언스필드 3층 콘

코스(중앙 통로)에서 사인회와 바자회를 열고 모금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구단도 각종 기념품을 판매할 예정이며, 수익금은 전액 차영화 코치 돕기에 사용된다.

상조회장인 이범호는 "차영화 코치님이 하루 빨리 완쾌하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선수들 스스로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며 "많은 팬들이 찾아오셔서 코치님이 쾌차하실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카이박스 이용권 문의 및 사전 예약은 챔스홀릭(1670-1578)으로 하면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